Econ Snapshot

Economy | 2026.4.13

Economist 전규연 kychun@hanafn.com

미국 3월 CPI: 전쟁 발 물가 영향은 단기에 그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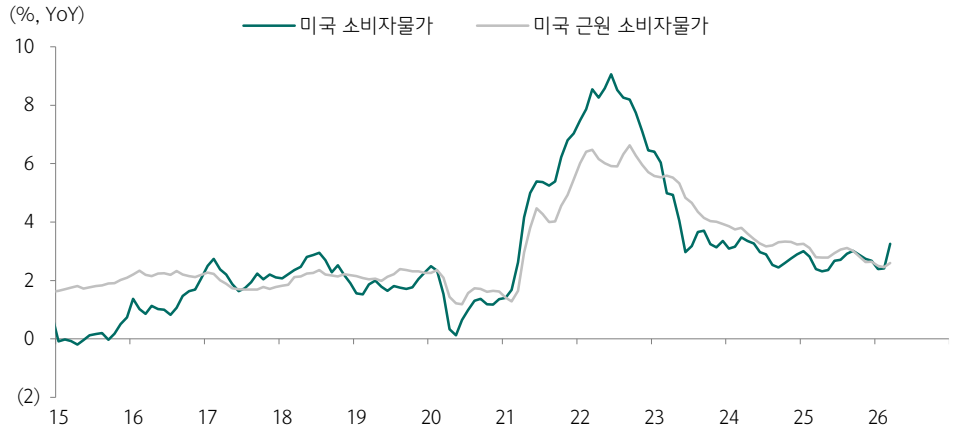
미국 3월 CPI Review: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불구 안정적인 근원 물가

- 미국 3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비 0.9%, 전년비 3.3%로 예상에 대체로 부합(컨센서스 전월비 0.9%, 전년비 3.4%)
- 근원 소비자물가(에너지, 식료품 제외)는 전월비 0.2%, 전년비 2.7%로 예상치 하회(컨센서스 전월비 0.2%, 전년비 2.7%)
- 3월 소비자물가는 예상대로 전쟁 발 에너지 가격 상승 영향이 주요. 휘발유 가격이 전월비 21.2% 오르며 에너지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10.9%). 미국 노동부는 휘발유 가격 급등이 전월비 물가 상승분의 약 3/4을 차지했다고 설명
- 항공 요금도 전월비 2.7% 오르며 운송서비스 가격 상승을 초래했으나 유가 상승에 비해서는 완만한 속도로 전가되는 중
- 반면 소비자물가 내 가중치가 높은 주거비는 전월비 0.3% 상승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으며, 처방약 가격 하락(-1.5%) 영향으로 의료비가 전월비 -0.2% 하락
-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은 의류(1.0%) 등 일부 품목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중고차 가격이 4개월 연속 하락(-0.4%)하고 신차 가격도 전월비 0.1% 상승하는 데 그쳐 큰 영향은 제한되는 모습. 관세는 미국 수입기업들이 부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

2차 파급효과 속도가 느리고 수요측 물가 압력이 낮다면 물가 상승은 단기에 그칠 가능성

-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결렬되어 유가 상승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 모른다는 점에서 향후 물가 상승 부담은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 다만 휴전 기간 내(~4/21) 양국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유가가 안정된다면 전쟁 발 미국 소비자물가 영향은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근원 물가가 예상보다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2차 파급효과 우려가 다소 완화. 이란 전쟁 발발 이후 미국 소비자심리가 약화되고 있어 에너지 가격 상승이 수요측 물가 압력으로 이어지기도 어려울 소지. 미국 4월 미시건대 소비자기대지수는 47.6P로 전쟁 이전(2월 56.6P)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 단기(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월 3.8% → 4월 4.8%로 급등했으나, 장기(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월 3.2% → 4월 3.4%로 소폭 오르는 데 그치며 기대 인플레이션 고정
- 2022년 인플레이션 급등 당시 미국 노동시장은 노동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던 시기였고, 현재는 노동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은 시기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 미국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도 정체된 상황
- 유가 상승이 일시적이라면,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은 약 3개월 정도 영향을 미친 후 점차 소멸될 것으로 예상
- 미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는 올해 9월 한 차례(25bp) 인하 전망을 유지. 전쟁 전개 방향에 불확실성이 높으며, 전쟁 발 물가 상승이 일시적일지라도 이를 확인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도표 1. 미국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비 3.3%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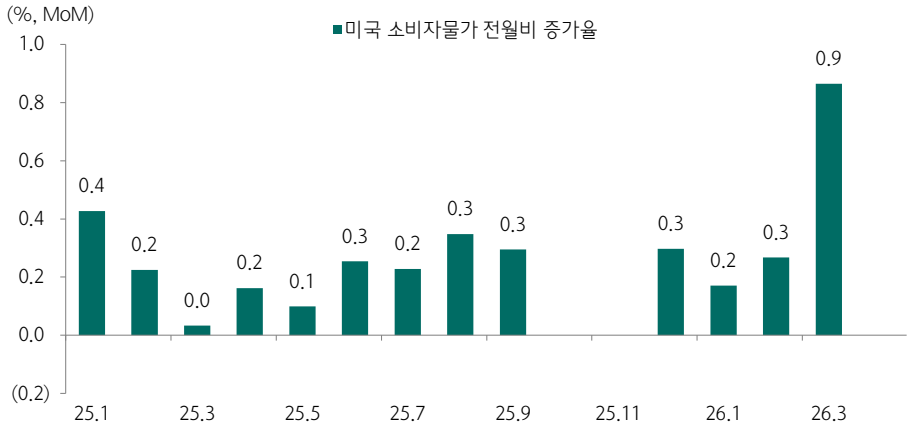
자료: LSEG, 하나증권

도표 2. 미국 소비자물가 세부항목 추이

	2026-03	2026-02	2026-01	전월대비
소비자물가(%, YoY)	3.3	2.4	2.4	0.8
근원 소비자물가(%, YoY)	2.6	2.5	2.5	0.1
소비자물가(%, MoM)	0.9	0.3	0.2	0.6
근원 소비자물가(%, MoM)	0.2	0.2	0.3	0.0
식료품	0.0	0.4	0.2	-0.4
에너지	10.9	0.6	-1.5	10.2
의류	1.0	1.3	0.3	-0.2
신규 자동차	0.1	0.0	0.1	0.1
중고차	-0.4	-0.4	-1.8	0.0
의료기기	-1.0	0.0	-0.1	-0.9
주류	0.3	0.1	0.2	0.1
담배	0.1	0.1	2.1	-0.1
주거비	0.3	0.2	0.2	0.0
의료서비스	0.0	0.6	0.3	-0.6
운송	0.6	0.2	1.4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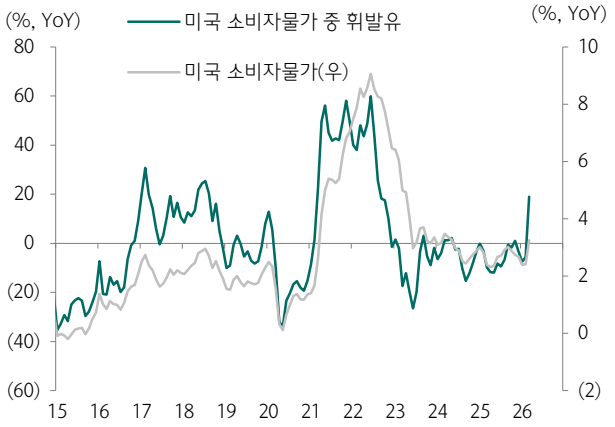
자료: LSEG, 하나증권

도표 3. 미국 소비자물가 전월비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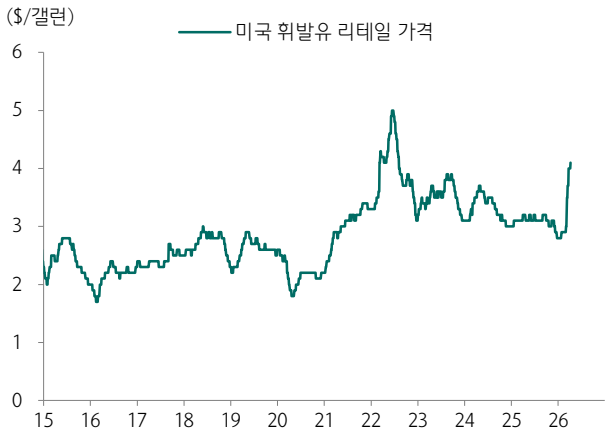
자료: LSEG, 하나증권

도표 4. 휘발유 가격 급등으로 헤드라인 물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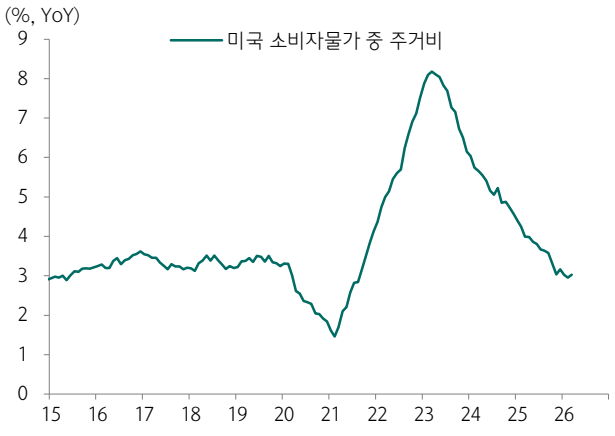
자료: LSEG, 하나증권

도표 5. 미국 휘발유 리테일 가격은 2월 말보다 38%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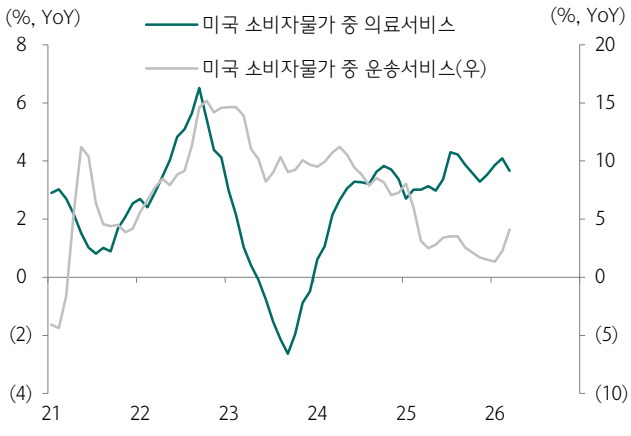
자료: LSEG, 하나증권

도표 6. 주거비는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중



자료: LSEG, 하나증권

도표 7. 의료서비스 가격은 하락, 운송서비스 가격은 상승



자료: LSE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